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신정훈 나주시장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 기틀 마련”

“올해는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공사 착공을 계기로 미래 나주 100년을 여는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동적인 한해가 될 것입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올해 최우선 시정목표는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과 미래 100년을 위해 미래형 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리 생산, 돈이 되는 소득 중심, 농업인 중심의 현장 농정을 실천하고 지역 미래농업에 부응하는 맞춤형 농정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앞서가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

현재 조성중인 5개 산업단지에는 나주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우량기업 유치와 올해 15개 기업을 추가 유치해 6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준다.

이밖에 나주사랑 상품권을 10억원 추가 발행하고, 소상공인 사업자금 융자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이달중에 성북 5일시장과 금계 상설시장 통합 이설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혁신도시를 유치한 저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 한해 시정의 가치를 ‘시민의 행복’에 두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생태하천 조성 적극 추진

새정부 들어서 맞이했던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신 시장은 또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나주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과 함께 국립 고고학 박물관, 문화재연구소, 북암리 고분전시관 건립에 주력하고 나주목화공원, 나주 영산테마

파크, 천연염색 문화관 등을 주제로 한 테마별 체험관광벨트가 조성된다.

또 영산강과 목(牧) 문화를 대변하는 창작·문예활동을 적극 지원, 나주시가 호남의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간중심의 편리하고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친수공간, 생태 숲 조성, 자전거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나주시를 기존의 회색도시와 차별되는 생명의 녹색도시로 가꿀 방침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목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읍성권, 흥어·선창의 거리와 풍물시장을 특성화시키는 등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도 추진된다.

혁신도시 차질없이 준공

또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문화콘텐츠 등 첨단 산업 집적화

혁신도시 건설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미래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나선다.

연내에 모든 이전기관의 부지매입 계약과 연관기관 이전협약을 완료하고 한진, 농어촌공사 등 선도기관의 분사건물 건축을 독려하는 한편 연수원 연구소 등 산하기관, 관련 기업 유치에도 힘써 2012년까지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준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농업분야 역시 믿을 주는 먹거리

곡성군 전남도 친환경농업 최우수상

곡성군이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친환경 농업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해 전체 경지면적의 절반이 넘는 54%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했으며 무농약임업 인증 면적도 43%로 집계됐다.

곡성군은 올해를 친환경농업 내실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친환경농업 단지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해남 우슬경기장 새단장 착수

‘동계 훈련지’로 부상하고 있는 해남 우슬경기장이 새롭게 바뀐다.

해남군은 올해부터 3년간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우슬경기장과 주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

특히 오는 10월 해남에서 열리는 ‘제 21회 전남도 민생활체육대회’ 이전까지 1천100㎡ 규모의 우슬

경기장 분부석과 관람석 증설 공사를 완료하고 부대시설 등을 보충해 나갈 방침이다.

우슬경기장 분부석은 20년전인 1988년 3월 준공돼 시설 노후화와 내부 공간 협소, 부대시설 부족 등으로 각종 대회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해남군 체육회와 관련 경기단체의 입주를 위한 사무실도 마련된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새해 황소의 기세로

함평군 함평읍 엑스포공원 입구에 길이 10m, 높이 6.5m, 폭 5m의 대형 황소 조형물이 세워졌다. 함평군은 기축년을 기념하고 지역 대표 특산물인 ‘함평천지한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의 황소 조형물을 설치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 ‘장애인 희망타운’ 가시화

전국 최초 추진...2016년까지 1,009억 투입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 ‘함평 장애인 희망타운 조성사업’이 국고와 민자 유치 및 기반조성사업이 20억원 확보로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6년까지 10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1천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장애인 희망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공립차매양양 병원 BTL사업(56억원)이 추가 확정된 데 이어 기반조성사업비로 전남도비와 함평군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장애인 희망타운’ 후보지 공모를 통해 함평군과 사업을 본격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반조성사업 확보와 국고보조사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4월 실시계획용역이 끝나는 대로 기반조성을 마무리한 뒤 현재 확보된 장애인다수 고용사업장, 노인전문요양시설, 차매양양병원 등 3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장애인 희망타운에는 종합복지센

터를 비롯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의료기관, 대기업 사회봉사 표준사업장,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 생계형 일자리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선진복지형 ‘뉴타운’으로 건설된다. 또 ‘장애인 희망타운’ 명칭을 사회통합개념을 담은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장성군 작년 비료 구입비 인상분 20% 지원

장성군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화학비료 구입비 인상분을 지원한다. 장성군은 지난해 6월 19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화학비료 인상분 1억 5천만

원을 지역 농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화학비료 구입비 인상분 100% 가운데 정부가 80%를 부담해 왔으나 농민 부담액 20%도 장성군이 지원해 영농비 부담을 덜게 됐다.

지원대상은 요소, 복합 등 49품목으로 비료 제조업체가 농협과 계약을 통해 지난해 6월19일부터 12월10일까지 농가에 판매된 비료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농가는 5천913 농가로 지원비는 10월까지 각 읍면 농협을 통해 입금된다. 문의: (061-390-7375) /장성=류승선기자 yjs52@

광주 영남학원 advertisement for 2009 entrance exams. Includes subjects like English, Math, Science, and Social Studies for various grade levels. Contact: 061-227-2588.

대인동상업부동산 advertisement. Focuses on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property sales and rentals. Contact: 061-223-1140.

금보부동산건설링 advertisement. Offer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struction. Contact: 061-261-8949.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dvertisement.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s. Contact: 062-973-9174.

현대공인중개사 advertisement.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s. Contact: 062-371-1900.

금당부동산 advertisement. Real estate services. Contact: 062-223-7400.